

## 수주 변영로의 초기 문학에 나타난 방랑과 이상적 공동체론\*

최 호 영\*\*

###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수주 변영로의 초기 문학에 나타나는 방랑의 모티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그에 따라 탐색하고자 하는 이상적 공동체의 상(像)과 의의를 해명하는데 있다. 변영로의 초기 시들을 검토해보면 일관적으로 상실한 ‘님’에 대한 지향성을 ‘방랑’과 ‘꿈’의 반복성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님’=‘조선’이 그에게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나아가 그는 ‘조선’을 ‘생명’의 근원인 ‘정신’에 위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탐색하기 위해 상징주의나 신비주의를 수용하기도 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는 ‘개성’을 도입하여 개인의 주체성과 조선적 특이성이 세계적 보편성으로 확장될

\* 이 글은 한국어문교육연구회에서 개최한 제206회 전국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대폭 수정한 것이다. 발표 당시 논문을 더욱 생산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토론을 해주신 나민애 선생님(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후연수 연구원

주제어: 수주 변영로, 방랑, 생명, 개성, 조선, 공동체

Suju Byeon, young-ro, Wandering, Life, Individuality, Joseon, Community

수 있는 공동체를 구상하고자 했다. 192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변영로는 방랑을 기행의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당대 문단에서 대표적인 전통적 양식으로 거론되었던 시조를 차용하여 이상적 공동체를 모색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그가 특히 민족사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백두산을 기행하고 이를 시조에 담아내려 한 것은 단순히 민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가 구상해오던 이상적 공동체의 원형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그와 영향관계에 놓인 단재 신채호와 위당 정인보의 역사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변영로의 초기 문학을 민족주의의 이념에 환원하려는 관행에서 벗어나 거기에 얽혀있는 풍부한 의미장들을 읽어냄으로써 1920년대 초기 문학의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더욱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 1. 들어가며:

### 1920년대 초기 문학과 변영로 문학 연구의 문제점

수주(樹州) 변영로(卞榮魯, 1898~1961)는 1918년 6월 최남선이 주재하는 『청춘』에 영시 『Cosmos』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장한 이래<sup>1)</sup> 1920년대의 대표적인 잡지인 『폐허』, 『장미촌』과 1930년대의 대표적인 동인잡지인 『시문학』을 거점으로 활발한 시작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24년 첫 시집 『조선의 마음』을 발간하고 해방 이후 시집 『수주 시문선』(1959)을 간행하기까지<sup>2)</sup> 40여 년에 걸친 시작활동을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 
- 1) 이에 대해 김윤식은 변영로가 구한말 명문 계층의 출신이면서도 근대성의 원천이라 할 만한 영문을 통해 시인으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았다고 보았다(처녀작에 대한 자세한 사정은 변영로(1981), 『나의 處女作』, 『수주 변영로문선집』, 한진출판사, pp. 276~279; 김윤식(1983), 『변영로의 문학사적 위치-「논개」의 기념비적 성격』, 『차라리 달 없는 밤이드면』(김영민 편), 정음사, pp. 196~202 참고).
  - 2) 변영로는 애초 해방 이후의 시들을 모아 『수주광복시초』라는 제목의 시집을 간행하려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1959년에 나온 『수주 시문선』은 기존의 『조선의 마음』에 수록된 작품의 일부를 가려 뽑고 거기에 이후의 작품을 골라

『명정 사십년』(1953)과 『수주 수상록』(1954)을 통해 수필가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변영로는 『신민공론』, 『신가정』 등의 주필로서, 중앙고보, 이화여전, 성균관대학교 등에서 교육자로 활동하였으며 그가 월간잡지 『신가정』의 주간으로 있을 당시 손기정의 일장기 말살사건에 연루되어 107일 동안 옥살이를 한 사건은<sup>3)</sup>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다. 이처럼 변영로는 문인, 교육자, 언론인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한국의 근·현대문학을 형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였음에도 정작 그의 문학에 대한 학위논문은 단 두 편에 그치고 있다.<sup>4)</sup>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들어 『기독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서 그가 발표한 작품들이 꾸준히 발굴됨에 따라<sup>5)</sup>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의 필요

---

실은 것으로 시와 산문, 한글과 영어의 표기방식에 따라 작품을 분류하고 있다. 그 뒤 변영로의 20주기 기념으로 유족들의 손에 의해 『수주 변영로문선집』(한진출판사, 1981)이 간행된 이후 민충환이 기존의 체제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소재의 발굴 작품뿐만 아니라 영시와 번역시를 보충하여 『수주 변영로 시전집』(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10)을 엮어낸 바 있다.

- 3) 이에 대해서는 김영민(1985), 『수주 변영로 평전-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pp. 128~131 참고.
- 4) 이선희(1985), 「수주 변영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수진(1998), 「1920년대 시의 ‘님’ 지향성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실 엄밀히 따지면 허수진의 논문은 ‘님’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 변영로의 시를 1920년대 시의 범위 안에서 다루는 것이라 할 때, 변영로의 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논문은 이선희의 논문 한 편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5) 필자는 최근 장로회와 감리회의 연합으로 발행된 『기독신보』에서 문학의 영역을 담당하였던 남궁벽과 노자영의 글과 함께 변영로가 발표하고 있는 수필 「麥穗」(『기독신보』, 1919.6.11.)를 발굴하여 소개한 바 있다(최호영(2014), 「『기독신보』에 나타난 문인들의 활동과 ‘이상향’의 의미」, 『민족문화사연구』 제56호, 민족문화사학회, pp. 331~360). 그리고 최근 한 연구에서는 1921년 7월 4일부터 같은 해 8월 27일까지 개설된 『조선일보』 문예란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과정에서 변영로가 게재하고 있는 시, 평론, 기행문 등을 소개하고 있으나 그전에 이미 민충환이 변영로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발표하고 있는 작품들을 발굴하여 소개한 바 있다(민충환(2008), 「변영로의 새로운 작품에 대해서-『조선일보』 발표본을 중심으로」, 『부천작가』 8, 산과들, pp. 10~19; 민충환(2009), 「변영로의 새로운 작품에 대해서(2)-

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아마도 그간 변영로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근본적인 요인 중 하나는 그의 대표작인 「논개」가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있는 작품으로 정전화되고 이러한 시각을 반영한 시사적(詩史的) 평가가 답습되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박두진은 「논개」를 거론하면서 변영로의 시가 1920년대의 문단에서 “민족 저항 의식의 서정시적인 승화, 시 기교의 일단의 전진을 가져오는데 공헌하고” 있으며 일제 말기의 처절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고고한 민족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것에서 그의 시사적 의의를 찾고 있다.<sup>6)</sup> 김윤식 또한 이와 비슷한 관점 아래 「논개」에서 변영로가 ‘조선마음’이란 관념을 ‘논개’라는 역사적 매개에 의해 시적으로 승화시켰다면, 「봄비」에서는 ‘구체적인 한국의 풍경(감각)’에 의해 시적으로 승화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시사에서 ‘조선마음’이란 “관념을 이토록 높은 수준에서 시적으로 승화시킨 독특한 메타포의 방식이 1920년대 초반에 변영로에 의해 이룩되었다는 사실”에서 기념비적인 의의를 확인하고 있다.<sup>7)</sup> 마찬가지로 구상은 변영로의 시적 주제를 “탐미”, “민족애”, “실존감성”의 세 가지로 압축하는 가운데 그의 「논개」에서 민족애를 “섬세한 비유구사와 고른 운율로 결정시켜” 놓았다고<sup>8)</sup>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초창기의 선행연구에서부터 주로 변영로의 첫 시집 『조선의 마음』을 대상으로 ‘민족정신’을 확인하려는 논의가 반복적으로 이뤄져왔다. 바꿔 말해, 이는 변영로 초기 시에

---

『동아일보』 발표본을 중심으로, 『소설과 비평』 창간호; 박현수·홍현영(2015), 「1920년대 초기 『조선일보』 「문예란」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제57호, 민족문학사학회, pp. 155~227.

- 6) 박두진(1983), 「민족 시인 변영로의 시」, 『차라리 달 없는 밤이든』, pp. 180~195.  
 7) 김윤식(1983), 「변영로의 문학사적 위치-「논개」의 기념비적 성격」, pp. 196~220.  
 8) 구상(1985), 「탐미와 민족애와 실존감성-수주 변영로의 시세계 별견」, 『곧고 다감한 구원의 자유인-수주 변영로의 인생과 문학』, 수주 변영로기념사업회 발기준비위원회, pp. 8~11.

서9) 빈번하게 나타나는 ‘꿈’ 혹은 ‘추억’을 통한 과거로서의 경사뿐만 아니라 당대 문학의 주된 경향인 감상주의나 퇴폐주의와 변별되는 성과를 제기하기 위해 ‘민족정신’을 내세우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몇 차례 후속연구가 전개됨에 따라 변영로의 시에서 ‘언어’에 대한 감각이나 기교의 구사를 고평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거슬러 올라가면 김기진, 주요한 등 변영로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시인들이 ‘언어’에 집중되어 있는 그의 시작 태도에 주목하여 그의 시에서 “기발한 비유와 관능 묘사에 편집하는 경향”이<sup>10)</sup> 있다고 지적한 것과 맞닿아 있다. 예컨대, 김영석은 변영로 시에서의 주체가 ‘구체적 현실’과 ‘추상적 현실’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논개』에서 ‘관념성’을 “고도의 시적 장치와 언어기교”와 성공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다면, 『봄비』에서 “관념의 서정적 처리”에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sup>11)</sup> 다시 말해, 이는 변영로의 시에서 관념이 형상화되기 위해서는 시적 기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오세인 또한 변영로의 시에서 ‘님’에 대한 지향성을 통해 역사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과 함께 “현상”에 감각적 구체성을 부여함으로써 미적 인식을 드러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변영로의 시사적 의의를 기존의 연구에서 『논개』로 대변되는 민족의식에 집중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감각’을 매개로 ‘현상’을 형상화시

9) 김영민은 변영로 시를 총 3기로 분류한다. 그에 따르면 『조선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제1기의 시들은 ‘님’ 심상을 통해 민족의식과 민족주의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고 그 이후 해방 전까지 발표된 제2기의 시들은 절대고립의 상황 속에서도 ‘자아’를 지키려는 시도로 점철되어 있다. 『수주광복시초』를 중심으로 하는 제3기의 시들은 해방 이후 조국 분단으로 접어드는 현실의 일면을 그려내고 있다(김영민(1983), pp. 264-283). 이 글 또한 이러한 시기 구분에 동의하면서도 김영민이 주로 『조선의 마음』을 기준으로 시기 구분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변영로가 지닌 문제의식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30년대 초반까지를 초기 문학으로 보고자 한다.

10) 김기진(1925.3), 『현시단의 시인』, 『개벽』, 개벽사, p. 5.

11) 김영석(1984), 「수주 변영로의 시세계-관념과 현실」, 『어문연구』 12권 2~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 406.

키려한 것에도 있다고 해명하였다.<sup>12)</sup>

물론 오세인의 논의는 감각적 구체성을 바탕으로 미학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변영로의 시에 ‘민족정신’의 이념이 내재해 있다는 전제를 수긍하고 있다. 이는 특히 후속연구에서 변영로의 시세계를 ‘현실공간’인 ‘도시’와 ‘상상된 장소’인 ‘시골’로 대별한 다음 그가 근대성의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정신과 전근대적 삶의 방식’이 존재하는 장소를 환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에서<sup>13)</sup> 단적으로 드러난다. 다시 말해, 기존의 논의에서 ‘민족정신’이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와 같은 것이었다면, 이 논의에서 ‘민족정신’은 ‘상상’에 의해 재구성되는 이념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폭넓은 시각에서 봤을 때 1920년대 국민문학의 논리를 바라보는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구인모는 1920년대 초기 시인들이 민요나 시조와 같은 전통적인 시형으로 복귀하게 된 것에 주목하여 그들이 ‘조선심’이나 ‘향토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통 감각과 음성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형성’을 추구하게 된 의도가 근대적인 민족 개념과 민족 이데올로기의 구성에 있었다고 해명하였다.<sup>14)</sup> 이러한 때 변영로를 비롯한 1920년대 초기 시인들은 개인보다 집단의 논리에 의거하거나 근대적으로 동일한 민족 담론을 구축하려는 문학에 복무한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sup>15)</sup> 이에 대해

12) 오세인(2013), 『변영로 시 연구-‘관념’과 ‘감각’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Vol. 23,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pp. 9-40.

13) 오세인(2014), 『변영로 시에 나타난 ‘거리(街)’와 ‘길’의 표상 대비 연구』, 『한국시학연구』 제39호, 한국시학회, pp. 203-227.

14) 구인모(2008), 『한국 근대시의 이상과 허상-1920년대 ‘국민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pp. 13-232.

15) 예컨대, 구인모의 논의에서 1920년대 조선의 시인들이 국민문학론을 추진하는 것을 메이지 시기 일본의 고쿠분가쿠[國文學] 운동과 구어자유시 운동 등과 동일선상에서 파악하거나 그들의 운동이 좌절되어 일본 오리엔탈리즘으로 흡수되었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시각을 적잖이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인모(2008), pp. 119-232.

최근 ‘민족주의’라는 단일서사를 생산하는 학문적 풍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로컬리티’의 관점에서 민족 공동체의 내부에 존재하는 중간 단계의 서사를 재구하려는 논의가 전개되거나<sup>16)</sup> 근대 국민국가를 넘어 역사시대 이전의 정신사적 흐름과 관련하여 민족 공동체를 새롭게 해명하려는 논의가<sup>17)</sup>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글은 변영로의 초기 문학을 단순히 ‘민족정신’의 이념으로 환원하려는 관행에서 벗어나 거기에 얽혀있는 미세한 의미망을 공동체의 관점에서 읽어내고자 한다. 먼저, 이 글에서는 변영로의 초기 시에서 상실한 ‘님’에 대한 지향성을 ‘방랑’과 ‘꿈’의 모티프를 도입하여 반복적으로 그려내는 의도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변영로가 ‘님’=‘조선’을 ‘생명’의 근원에 위치시키고 ‘개성’의 도입을 통해 구상하려는 공동체의 상(像)이 어떠한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변영로가 기행의 방식과 시조의 형식을 통해 이상적 공동체의 원형을 탐색하고 있는 측면을 해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글은 향후 변영로의 문학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1920년대 초기 문학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16) 정주아(2014), 『서북문학과 로컬리티－이상주의와 공동체의 언어』, 소명출판, pp. 154-360. 정주아는 전영택, 주요한, 김동인 등 이광수와 안창호의 계보에 있는 1920년대 초기의 문인들이 서북지역 태생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들이 제출한 공동체의 이상주의가 ‘로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면서도 영토, 국경, 민족의 경계를 넘어 인류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세계주의나 보편주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명하였다.

17) 신범순(2011), 『노래의 상상계－‘수사’와 존재생태기호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 253-268. 신범순은 선사시대의 암각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체 존재의 생명창조가 전체 생태계의 진화로 도약하고 있는 “존재 생태계”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존재생태계”는 무력과 율법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역사시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역사시대의 저층에서 흘러와 정신사적 토대로서 작동한다. 특히, 근대 초기에 오산학교와 대성학교 출신의 문인들이 전개한 사상, 천도교의 이상향 운동, 대안적 조직체로서의 계몽구락부 등은 그러한 정신사적 토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 2. ‘님’이라는 숭고한 대상을 둘러싼 방랑과 꿈의 모티프

선행연구에서 누차 지적되었다시피 변영로의 초기 시에서는 ‘님’이라는 대상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김영민에 따르면, 변영로의 첫 시집 『조선의 마음』에서 ‘님’을 직접적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시가 8편, ‘님’과 동일한 분위기를 가진 ‘그대’를 중심으로 하는 시가 5편, 그리고 ‘님’과 ‘그대’가 함께 나타나는 시가 1편으로 총 14편에 달한다.<sup>18)</sup> 이는 『조선의 마음』에 수록된 작품이 29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집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숫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님’이라는 대상을 시집의 표제로 삼고 있는 ‘조선’과 단선적으로 연결하여 변영로가 이 시집에서 ‘민족 의식’이라는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고<sup>19)</sup> 단정 짓기에 앞서 시적화자에게 ‘님’이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첫 번째로, 변영로가 ‘님’을 이미 상실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 그러한 ‘님’에 대해 방랑과 꿈의 모티프를 도입하여 만남의 갈망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자.

(가) 바다에 계신 그대를/ 더울로 찾아 다녔어라// 그래 더울인가  
하고 가보니/ 그대는 그 곳에도 안 계셔라.

「放浪의 노래」 전문<sup>20)</sup>

(나) 가장 늙은곳에 쇼릭잇셔「나를치여다 보라」/ 「가장먼곳에 쇼  
릭잇셔「山넘고물건너 너게로오라」/ 가장 김흔곳에쇼릭잇셔「아아어  
서와 이품에안기워라」/ 가장갓가운곳에 쇼군거리는쇼릭잇셔「나를  
위호야 너의목숨버려라—너사람아—」

「久遠혼 女性의부름」 전문<sup>21)</sup>

18) 김영민(1983), p. 265.

19) 김영민(1983), p. 265.

20) 변영로(1924), 『조선의 마음』, 평문사, p. 33. 인용문에서 굵은 강조 표시는 인용자의 것임을 밝히며 이하 생략하도록 한다.



인용된 시에서 변영로는 공통적으로 상실한 ‘님’에 대한 거리감을 보여 주면서도 (가)에서는 ‘님’에 대한 수평적 거리감을, (나)에서는 ‘님’에 대한 수직적 거리감을 전면화하고 있다. (가)를 보면 그는 ‘그대’를 찾기 위해 ‘들’로 나섰고 결국 ‘들’을 찾을 수 있었으나 ‘그대’를 찾을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대는 ‘들’이 아닌 ‘바다’에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들’과 ‘바다’라는 장소적 불일치는 그와 그대 사이에 가로 놓인 수평적 거리감을 현격하게 보여줌에 따라 두 사람이 결코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암시를 던지고 있다. (나)에서는 그러한 수평적 거리감과 함께 그와 님 사이에 가로 놓인 수직적 거리감이 부각되어 있다.

이미 제목에서 나타나 있듯이 이제 그에게 님은 ‘가장 높은 곳’, ‘가장 먼 곳’,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대상이다. 것처럼 “구원”(久遠)한 곳에 있는 님이 그에게 ‘자신을 쳐다보라’고 ‘산 넘고 물 건너 자신에게 오라’고 ‘자신의 품에 안기라’고 말해도 그와 님이 만날 수 있기는커녕 둘 사이에 놓여 있는 거리감만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에게 소곤거려 봤자 그가 ‘목숨’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둘 사이의 만남은 성사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만남의 불가능성이 전면화되고 있다. 따라서 그에게 상실한 님은 다다를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을 뿐이다. 이처럼 변영로는 자신과 님 사이에 가로 놓인 수평적 거리감과 수직적 거리감을 보여줌으로써 님에 대한 상실감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제적인 것은 그가 초기 시들에서 일관적으로 방랑과 꿈의 모티프를 도입하여 님에 대한 지향성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시들을 살펴보자.

(다) 數업논 불빛—數업논 門—數업논 窓/ 아—戀人이여 어느 房에  
그딤논 잇는가? 어느 門을 쭈다리릿가? 어느 窓아-리가노릭을 부르릿  
가? 밤 박쥐(蝙蝠)모양으로 그딤 窓밧호로 날지못하야 彷徨호는 너  
로다— 아이戀人이여 어느곳에 그딤논 잇는가? 어느 門을 쭈다리  
릿가? 어느 窓아리에서 나의노릭을 브르리잇가?

「彷徨」 전문22)

21) 변영로(1921.7.4), 『조선일보』, p. 1.

(라) 생시에 못뵈을님을 꿈에나 뵈가하여/ 뵈가는 푸른고개 넘기는  
 넘었스나/ 뵈조차 흔들니우고 흔들니여/ 그림든그대 갖가올뜻 머  
 러라// 아, 밋그렵지안은곳에 밋그려져/ **그대와 나 사이엔 만리가 격  
 헛서라**/ 다시 못뵈을 그대의 고희얼골/ 사라지는 옛뵈보다도 희미하  
 여라

「생시에 못 뵈을 님을」 전문<sup>23)</sup>

위의 시에서 변영로는 각각 방랑과 꿈을 통해 님에 대한 지향성을 표출하고 있다. 제목에서 단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다)에서 그는 님을 찾기 위해 방랑의 여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에는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불빛’, ‘문’, ‘창’들이 있다는 점에서 그가 결코 ‘연인’을 찾지 못한 거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연인’을 향해 어느 방에 그대가 있으며 어느 문을 두드리고 어느 창 아래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를 연달아 되묻고 있을 뿐이다. ‘밤 박 쥐’와 달리 그는 결국 연인이 있는 창 밑으로 날지 못하는 존재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다시금 연인을 향해 어느 곳에 그대가 있으며 어느 문을 두드리고 어느 창 아래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를 되묻는 것은 앞에서와 같이 단순한 탄식의 의미에 머무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연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가 연인을 향한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앞으로도 연인에 대한 방향을 계속해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영로는 (다)에서 방랑의 반복성을 통해 님에 대한 지향성을 표출하고 있는 셈이다.

(라)에서 그는 방랑을 꿈의 모티프로 변주해내고 있다. 1연에서 그는

22) 변영로(1921.7.4), p. 1.

23) 변영로(1924), pp. 6~7.

‘꿈’에서 님을 만나러가는 여정을 보여준다면, 2연에서는 님과의 만남에 실패하고 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생시에’ 그리워하던 님을 만나기 위해 꿈속에서 ‘푸른 고개’를 넘어 님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님과 만나지 못하고 만다. 이는 시에서 ‘꿈조차’ 흔들린다는 염려에서 나아가 미끄럽지 않은 곳에 미끄러지고 마는 상황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에게 님은 결국 ‘만 리’나 떨어져 있는 대상이자 ‘생시에’ 뵈지 못할 대상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님과 얽힌 ‘옛꿈’보다 님의 ‘고운 얼굴’이 더욱 희미하다고 고백함으로써 자신과 님 사이의 거리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꿈’을 반복하여 님에 대한 지향성을 강렬하게 표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는 「낮에 오시기꺼리시면」,<sup>24)</sup> 「꿈만은나에게」,<sup>25)</sup> 「나의꿈은」 등 제목에서부터 꿈을 반복적인 모티프로 등장시키고 있으며 자신의 꿈이 ‘꽃 없는 잎(葉)’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꿈속의 꿈’에까지 그 ‘꽃’을 찾아갈 정도로<sup>26)</sup> 강박적인 충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환상’의 산물인 ‘날개’를 동원하여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님 계신 곳’으로 ‘쉽 없이’ 날아가려는 지향성을 표출하고 있기도 하다.<sup>27)</sup>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드러났듯이 변영로는 초기 시에서 ‘거리감’을 통해 님에 대한 상실감을 구체화시키면서도 ‘방랑’과 ‘꿈’의 모티프를 도입하여 님에 대한 지향성을 표출하고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님을 숭고한 위치에 두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칸트의 숭고론과 비교해보면 변영로의 숭고에 대한 인식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sup>28)</sup> 칸트에 따르면,

24) 변영로(1924), pp. 39-40.

25) 변영로(1921.7), 『신천지』, 『수주 변영로 시전집』(민중환 편), p. 208.

26) 변영로(1921.7), 「나의꿈은」, 『신천지』, 『수주 변영로 시전집』(민중환 편), p. 212.

27) 이와 관련된 시로는 「追憶만이」, 「오날개여」, 「오날개여(2)」 등을 들 수 있다.

28) 여기서 숭고의 관점에서 칸트와 변영로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종래의 논의에서 한국 근대시에서의 ‘숭고’에 대한 인식을 ‘민족주의’와 연결시키는데 주된 이론으로 칸트의 숭고론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논의로는 윤지영

절대적인 크기이든, 위력적인 대상에 직면하였든 인간이 상상력의 한계 의식을 느낄 때에는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오히려 절대적인 총체성이라는 이념을 현시하려는 이성의 입장에서는 적합하다는 점에서 ‘숭고’가 발생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칸트에게서 ‘숭고’는 인간을 압도하는 대상 자체보다는 그것을 반성적·감성적으로 인식하는 인간의 탁월한 능력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sup>29)</sup> 하지만 변영로에게 ‘숭고’는 인간의 이성보다는 ‘방랑’과 ‘꿈’을 반복하게 하는 ‘님’에게서 촉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왜 변영로가 님을 숭고한 위치에 두려고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다음 장에서 ‘님’과 연장선상에 놓여 있던 ‘조선’이 그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 3.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조선’과 ‘개성’의 도입을 통한 이상적 공동체의 구상

앞에서 우리는 변영로의 초기 시에서 상실한 님에 대해 방랑과 꿈의 모티프를 반복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님을 숭고한 위치에 두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도 이러한 점이 그간 변영로의 문학세계를 ‘민족

(2012), 『한국 현대시의 숭고 연구에 관한 탈근대적 검토』,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8집, 현대문학이론학회, pp. 371~392; 윤의섭(2013), 『근대시에서 ‘숭고’의 위상』,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pp. 67~89 참고). 여기서 벗어나 필자는 1920년대 초기 시에서의 ‘숭고’가 ‘생명’ 개념을 토대로 하여 상실된 공동체의 이상을 발견하고 당대 조선에서 이상적 공동체를 구상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을 해명하고자 했다. 이 글에서 변영로의 초기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1920년대 초기 문학을 바라보던 관점을 보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최호영(2016), 『1920년대 초기 한국시에서의 숭고시학과 생명공동체의 이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143).

29) 임마누엘 칸트(2014), 백종현 옮김, 『판단력 비판』, 아카넷, pp. 253~293.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일환으로 직결시키는 근거로 작동해왔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변영로의 시를 단선적으로 '민족주의'의 이념에 연결시키는 것에 앞서 거기에 얽혀 있는 미세한 의미망들을 읽어낼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다시 말해, '님'이 그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기에 그를 방랑하게 만들고 꿈을 반복하게 만드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님'과 연장선상에서 그가 시집 『조선의 마음』의 표제로 내세우고 있는 '조선'의 의미를 고찰하는 작업과 통한다. 왜냐하면 '님'과 마찬가지로 '조선' 역시 그가 상실해버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지향성을 반복하도록 추동하는 대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가) 「조선마음」을 어대가차즐가?! 「조선마음」을 어대가차즐가?!  
 굴속을 엿볼가, 바다밧을 뒤져볼가?! 뽀뽀한 버들가지틈을 헛쳐볼  
 가?! 아득한 하늘가나 바라다볼가?! 아, 「조선마음」을 어대가서 차  
 저볼가?! 「조선마음」은 지향할수업는마음, 설흔마음!

「서대신에」 전문<sup>30)</sup>

(나) 나의生命은 暴風에 불니우는 쫓이다—어느새 무슨異常 緣  
 分으로 불기실은 봉오리(蕾)가 피워사다—

그럼으로 나는살아도 사는것이안이다 아직죽지 안이흐얏슬 썬이  
 다 다만우엇에 썰니우고 썰니을썬이다 무슨容赦업는 큰「손」이 나  
 를 잡아압흐로 압흐로 미는것이다—무슨의일썬업는두려운 「힘」 나  
 를 前에 거러보지도못흐든 서투른 길에 너져우고 걸니우는것이다  
 나는 다만눈을감고 其偉力잇는 命숨을쫓차 나갈썬이다 가는 데가  
 어딘지는 가는나도 모른다 가는데가 山이거나 바다지나나는 相關  
 치안이흐다 가는데가 「죽음」의 나라거나 「사랑」의樂土거나 나는  
 못지안이흐다 다만 썬르니워갈썬이다—

「나의生命」 전문<sup>31)</sup>

30) 변영로(1924), 『조선의 마음』, p. 1.

31) 변영로(1921.7.4), 『조선일보』, p. 1.

일명 『조선의 마음』이라 불리는 (가)는 시집 『조선의 마음』의 서시라는 점에서 이 시집이 지향하는 바를 적잖이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찌감치 이 시를 “변영로의 민족정신과 시의 성격을 좀 더 포괄적으로 또 간명 직절하게 나타낸 시”라고<sup>32)</sup> 평가내리고 있다. 그에 앞서 정작 이 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변영로가 그저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왜 ‘조선마음’(또는 ‘조선의 마음’)이라 하고 있는가이다. 시의 마지막 행에서 “지향할수업는마음, 설흔마음”이라는 상반된 표현을 병치시키고 있다고 볼 때, ‘조선마음’은 두 가지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변영로는 ‘조선마음’을 ‘조선이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보고 있으며 그것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는 1행과 2행에서 연달아 “『조선마음』을 어대가차즐가?”라며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가 ‘굴속’이든, ‘바다 밑’이든, ‘뽁뽁한 버들가지 틈’이든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조선마음’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그는 그저 “아득한 하늘가나 바라다볼가?”라며 탄식하며 ‘조선마음’에 대한 상실감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변영로는 ‘조선마음’을 ‘조선을 향해 있는 마음’으로 보고 있으며 그것을 찾아 헤멜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앞에서 그가 ‘조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5연에서 이미 ‘조선마음’에 대한 상실감을 ‘아득한 하늘가’라는 ‘거리감’으로 구체화하고 6연에서 “『조선마음』을 어대가서 차저볼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조선마음’을 찾을 수 없다는 탄식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마지막 연에서 “설흔마음”이라는 표현을 통해 ‘조선마음’을 상실한 상황에 처해있을 뿐 그것을 필연적으로 찾아 헤멜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영로는 이 시에서 ‘조선’을 상실해버린 상

---

32) 박두진(1983), p. 183.

황에서도 그것에 대한 지향성을 표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앞에서 변영로가 ‘님’이라는 대상에 대한 상실감을 수평적·수직적 거리감으로 표면화하면서도 그에 대한 방황과 꿈의 모티프를 반복하고 있는 것과 맞닿아 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변영로는 왜 ‘님’=‘조선’을 숭고한 대상으로 두려웠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보자. 이것을 해결할 실마리는 바로 (나)에서 찾을 수 있다.

제목에서부터 변영로는 자신의 ‘생명’을 획득하려는 목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생명’을 ‘폭풍’이 몰아치는 ‘꽃’에 비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꽃’이 ‘봉오리’를 피운다고 해서 ‘꽃’으로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폭풍’에 뒤흔들리는 것에서 ‘꽃’으로의 ‘생명’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현재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에 불과한 자신이 무언가에 강렬하게 이끌릴 때서야 진정 살아 있다는 징표로서 ‘생명’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변영로가 ‘봉오리’라는 정적인 아름다움을 거부하고 ‘폭풍’의 파괴성을 긍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명’을 확인하는 것은 당시 그가 처해 있는 내·외부적인 상황과 연계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먼저, 그가 이 시를 발표하기 이전에 당대 문단에서 『폐허』의 동인으로 참여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폐허』의 제호는 독일시인 실리의 “넛것은滅하고, 時代는變하였다./ 내生命은廢墟로부터온다.”<sup>33)</sup> 시구에서 따온 것으로, 그들은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것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찾고자 했다. 이로 미루어볼 때, 변영로 또한 ‘꽃’의 ‘봉오리’와 같은 안일한 삶에 만족하기보다 ‘폭풍’의 파괴력을 수긍하는 것에서 약동하는 ‘생명’을 느낄 법하다. 다음으로, 그가 『폐허』를 발간하기 전에 일본의 도쿄에서 남궁벽, 오상순,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와 회합한 일 또한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sup>34)</sup> 다시 말해, 다이쇼기의 일본에서 ‘생명’의

33) 「想餘」(1920.7), 『폐허』 창간호, 폐허사, p. 128.

34) 이종호(2005), 『일제시대 아나키즘 문학 형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실체를 획득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야나기 무네요시 역시 ‘다이쇼 생명주의’를 형성하는데 일조하였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sup>35)</sup> 변영로가 이 시에서 ‘폭풍’의 파괴력과 결합하여 그리고 있는 ‘생명’의 도약은 그러한 영향권에서 멀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내·외부적인 상황에 따라 ‘생명’이 가지는 함의를 파악하기보다 이 시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맥락을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 보면 어떠한가. 1차적으로 변영로는 이 시에서 폭풍의 파괴력을 등장시키고 이에 필연적으로 떠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고조시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그가 거기에서 나아가 자신의 내부에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을 암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의 ‘생명’은 자신을 압도하는 “큰『손』”이나 “두려운『힘』”이 자신을 앞으로 떠미는 ‘위력 있는 명령’을 따름에 따라 느낄 수 있다. 이는 그의 ‘생명’의 근원이 자신의 내부보다 외부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는 곳이 ‘산’, ‘바다’, “『죽음』의 나라”, “『사랑』의 낙토” 등 어느 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에 끌려갈 뿐이다. 따라서 그는 외부에서 자신을 강렬하게 잡아끄는 어딘가로 이끌려갈 때 내부에서 약동하는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위논문, pp. 159~163.

- 35) ‘생명주의’의 관점에서 일본의 근·현대 문학사를 탐색한 스즈키 사다미는 메이지 45년(1912)부터 다이쇼 3년(1914) 사이 일본의 문단에서 ① 시마무라 호게츠[島村抱月], 소마 교후[相馬御風] 등 이른바 ‘생명’을 키워드로 하여 ‘자연주의’의 논쟁을 펼친 일군들, ② 가네코 지쿠스이[金子筑水]와 같이 유럽의 세기말에서 20세기 초의 문예를 번역·소개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개념을 발견하는 일군들, 그리고 ③ 오스키 사카에[大杉栄]를 비롯하여 시라카바[白樺]의 일군들까지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엮어낸 바 있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세 번째의 시라카바파에 속해 있다(鈴木貞美(1996), 『生命で読む日本近代—大正生命主義の誕生と展開』, NHK BOOKS, pp. 6~36; 남궁벽, 오상순 등 1920년대 초기 문인들의 ‘생명’의식을 야나기 무네요시의 ‘생명’ 담론과 비교하여 풀어낸 논의로는 최호영(2014), 『야나기 무네요시의 생명사상과 1920년대 초기 한국시의 공동체 문제』, 『일본비평』 제11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pp. 238~273 참고).



물론 이 시에서 변영로가 자신을 잡아끄는 그곳에 대해 “무슨”이라는 형용사를 연달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곳이 정확하게 어디를 가리키는 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의 ‘생명’을 불리일으키는 근원임에는 틀림없다. 이는 그의 다른 글을 참고해보면 좀 더 명확해진다. 변영로는 『장미촌』의 동인으로 참석하여 『장미촌』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글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성배’를 찾아나서는 원탁의 기사에 비유한 바 있다. 그가 보기에 ‘물질계’를 벗어나는 ‘정신계’에 바로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이 존재한다. 그는 심지어 거기에 자신들이 살아야만 하는 ‘숙명적 생명’이 흐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사명을 정당화하고 있다.<sup>36)</sup> 이처럼 ‘생명’의 근원을 ‘정신’에 위치시키려는 관점은 그의 다른 글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그는 제목에서부터 ‘정신’을 내세우는 짧은 글에서도 당대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장단점을 거론하는 가운데 문예에서의 ‘심적’, ‘정신적 방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sup>37)</sup> 이는 ‘물질’ 방면에 속해 있는 그가 진정한 ‘생명’을 느끼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신적’ 방면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한 점에서 변영로는 초기부터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정신’을 탐색하기 위해 상징주의와 신비주의를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그는 기계적 시간관에 얽매어 있는 ‘일생’에 ‘억만년’과 같은 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상징적 생활’을 요청하고 있으며<sup>38)</sup> 감상주의와 물질주의에 편중된 당대 문단에서 그동안 보지도 느끼지도 못한 새로운 세계를 찾기 위해 ‘신비주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sup>39)</sup>

따라서 변영로는 초기의 글에서부터 외부에 있는 어떤 근원을 자각할 때 내부에서 약동하는 ‘생명’을 느낀다고 보았던 것이며 ‘생명’의 근원을

36) 변영로(1925.1), 『薔薇村』, 『장미촌』 제1호, 장미촌사, p. 1.

37) 변영로(1928.1), 『至高至純한精神的文藝』, 『조선지광』 제75호, 조선지광사, pp. 8~9.

38) 변영로(1922.12), 『象徴的으로살자』, 『개벽』 제30호, 개벽사, pp. 30~31.

39) 변영로(1922.1), 『메-터링크와에잇스의神秘思想-「靑島」의作者와「秘密의薔薇」의作者』, 『폐허』 제2호, 폐허사, p. 33.

‘정신’이라는 기호로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맥락으로 보건대 그가 ‘생명’의 근원으로 보고 있었던 대상이 바로 ‘님’=‘조선’이었다. 다시 말해, 그가 이미 상실한 ‘님’=‘조선’에 대해 방랑과 꿈의 모티프를 반복하여 이를 숭고한 위치에 두려웠던 것은 ‘님’=‘조선’이 자신의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이자 정신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위함이었다. 이런 점이 그간 그의 시에서의 ‘님’=‘조선’을 단순히 ‘민족정신’의 이념을 고취하기 위한 대상으로만 봄에 따라 가려져왔다. 보다 중요한 점은 변영로가 이러한 ‘생명’의 근원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개성’을 도입하여 개인의 주체성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 個性의 絶對命令에 忠實하게 服從하여야 한단말이다 무슨 風(글쓰는)에 感染도되지말고 무슨이 습쓰(主義)에 잡히지도말고 또 무슨 무순派, 무순流에 窒息이 되지도말고 오즉 自己式, 自己風, 自己流의 文藝를 自己가 스스로 創造하여야 好것이다. 그리하여야 眞正한 文學이 産出될 것이다.

「글쓰는것에게告하노라=個性表現의 文藝를 建設하라=(一)」 부분40)

(라) 要컨대 現代는 全人類社會가 魔界로 化하든가 大理想國을 建設하든가 하는 卽簡單하게 말하면 將來의 隆○를 占하는 時代이며 우리는 其理想國을 建設하는 役軍의 一員이다 엇지 高枕安臥하야 世事는 吾不關焉 이라할가? 우리는 覺醒하고 奮起하야 全人類의 大共通理想을 向하야 勇往邁進하자

우리의 處地와 境遇와 生活의 背景이 歐美及 다른 나라와 相異하다 相異함으로 不安의 原因과 狀態와 程度가 亦相異할것이다 (… ) 然則 우리가 우리의 生活上 不安을 救治하자면 以上列舉한 三大問題를 先決하야 할것이다 第一로 우리는 境遇의 拘束을 버서야 先完全히 自己發展과 個性의 伸張을 圖하겠다 그러면 如何한 方法과 手段으로 써이 境遇의 拘束에 서 解放되야 서 完全한 自己發展과 個性의 伸張을 期할수잇을가?

「現代生活의 不安(1~2)」 부분41)

40) 변영로(1921.7.7), 『조선일보』, p. 1.

인용된 글은 각각 문예론과 시론(時論)으로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논제에 대한 관점을 전개할 때 ‘개성’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겹쳐볼 만하다. 이 글에서 변영로는 일찌감치 ‘자아’를 표현하고 ‘자아’를 본령으로 하는 ‘자기적 생활’을 주창한 것의 연장선상에서<sup>42)</sup> ‘개성’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개성’을 개인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척도로서 도입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의 범주를 당대 조선의 사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입한 ‘개성’을 그보다 상위의 차원인 ‘전체’와 조화시키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 조선적 현실에 기반하는 공동체의 상을 구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에서 변영로는 먼저 ‘개성’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논하면서 ‘개성표현의 문예’를 주장한다. 이때 그가 ‘자기’의 위치에 서서 ‘개성’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대의 문학이 ‘형식’의 구속과 같은 ‘틀’에 얽매어 있거나 ‘자연주의’나 ‘신비주의’와 같은 ‘주의’와 ‘태도’에 얽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형식과 주의의 구속으로부터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개성’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지 사회로부터 차단한 개인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개성’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글보다 앞서 발표한 (라)에서 개인의 ‘개성’의 문제를 당대 사회와의 관련성에 따라 풀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넓게는 세계적 보편성이라는 이상을 배경으로 풀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변영로는 (라)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선결적인 방안으로 ‘자기 발전과 개성의 신장’을 도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는 개인의 측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당대 조선사회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그가 ‘자기 발전과 개성의

41) 변영로(1920.9.20~21), 『동아일보』, p. 1.

42) 변영로(1920.7.6), 『主我的生活(一)』, 『학지광』 제20호, 학지광사, pp. 55~56.

신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사상의 파괴와 건설, 남녀평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런 점에서 그가 개인적 차원에서 도입한 '개성'은 당대 조선사회와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변영로는 조선사회 자체에 국한된 공동체가 아니라 "전인류의 대공통이상"으로 확대되는 공동체를 구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는 당대 조선사회가 구미 및 다른 나라들과는 상이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적 보편성과 연결되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변영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성'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개인의 주체성이 당대 조선사회를 비롯하여 '전인류'의 차원과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구상하려했던 것이다.

#### 4. 기행의 방식과 시조의 형식을 통한 공동체의 원형 탐색

지금까지 우리는 변영로의 초기 문학에서 '생명'의 근원에 대한 탐색과 함께 '개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체와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탐색하고 있는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측면은 기존의 연구사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첫 번째로, 종래의 논의에서 변영로의 문학을 당대 동인지와 변별시키거나 그의 문학 내에서 '낭만적 감상주의'나 '소극적 퇴폐주의'의 성향을 띠는 작품들을 배제시키려는 선형적 시각을 일정 부분 덜어준다. 앞에서 우리는 변영로의 초기 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방랑과 꿈이 '님'='조선'이라는 '생명'의 근원을 지향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초기 시에서의 모티프들은 일정한 주제 아래 모였다고 흠여지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기존의 논의에서 변영로의 몇몇 작품들을 대상으로 그의 문학세계를 '민족정신'의 이념을 고취하려는 시도로 직결시키는 관점을 재고하게 만든다. 앞에서 우리는 그가 '생명'의 근원에 대한 탐색과 함께

개인의 주체성이 당대 조선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 보편성과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구상하려 했다고 살펴본 바 있다. 이런 점에서 그가 탐색하려한 공동체는 개인의 개성을 집단의 이상에 희생시키거나 당대 조선 사회에 국한된 배타적 공동체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진대 변영로의 문학을 ‘민족주의’로 치환시키는 방식에서 가려져온 미세한 의미망들을 읽어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변영로가 초기에서부터 이상적 공동체를 탐색하려는 시도는 기행의 방식과 시조의 형식을 도입함으로써 좀 더 구체화된다. 그는 1921년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금강산에 관한 기행문을 연재한 바 있다. 이 기행문에서 그는 원산 항구에서 금강산의 구룡담, 해금강, 삼일포, 백운대, 비로봉, 만폭동, 장안사 등에 이르는 열흘간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sup>43)</sup> 대체로 명승지나 유적을 바탕으로 한 풍경 묘사와 그것을 바라보는 단편적인 인상을 전달하고 있다. 그에 비해 그가 1930년 여름에 백두산을 등반한 여정을 담은 시편들은 백두산을 ‘님’으로 부르는 가운데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초기의 주제의식을 이어받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이 시편을 쓰기 전에 변영로는 개성을 여행한 경험 가운데 개성의 명물인 정몽주와 박연폭포를 바탕으로 여정에서 느끼는 상념을 시조의 형식에 담아낸 바 있으나,<sup>44)</sup> 백두산 등반의 여정을 담은 그의 시조들은 당대 문단의 맥락에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총 14수로 이루어진 변영로의 『白頭山갓든길에(一景一首)』(이하 백두산 시편)는 당대 조선의 맥락에서 봤을 때 민족사의 본원지라 할 수

43) 변영로(1921.8.1~8.18), 『金剛行』, 『조선일보』, p. 1. 변영로는 『조선일보』 문예란(1면)에 1921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 1회부터 5회를, 8월 11일부터 18까지 8회부터 14회분을 연재하였다. 이때 8월 13일자의 『金剛行』은 17일에 실린 14회와 동일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현수·홍현영(2015), p. 164 참고.

44) 변영로(1925.10.30), 『송도偶吟』, 『동아일보』, p. 3.

있는 ‘백두산’을 기행한 기록물과 연관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육당 최남선이 1926년 여름에, 그리고 이후 민세 안재홍이 1931년에 각각 백두산을 순례한 경험을 담은 『백두산근참기』와 『백두산등척기』라는 기행문을 발표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백두산을 대상으로 한 기행은 1920~30년대의 조선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변영로의 백두산 시편에서 취하고 있는 시조의 형식은 당대의 문단에서 민족적 시형을 탐색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대상이었다. 말하자면, 김억이 조선적인 시형과 시가의 기원을 탐색하기 위해 ‘시조’의 문제를 다뤘다거나<sup>45)</sup> 최남선이 조선인의 생활과 감정을 가장 담은 ‘조선 문학의 극치’로서 ‘시조’를 제창하였다는 사실<sup>46)</sup> 또한 익히 알려져 있다. 이런 점에서 1920~30년대의 조선에서 시조는 조선적인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시형으로 논의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최남선을 비롯한 조선의 문인들이 ‘조선심’이나 ‘향토성’과 같은 조선인의 공통심성과 ‘음성중심주의’를 통해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상상’하려는 시도로써<sup>47)</sup> 평가하였다.

하지만 1920년대 문인들을 대상으로 민족 공동체의 문제를 근대적인 관점에서 다루려는 이러한 일반론은 당대 조선이 처해있던 특이한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변영로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탐색과 함께 세계적 보편성을 바탕으로 당대 조선적 현실에 기반하는 공동체를 탐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의 그의 백두산 시편을 통해 초기 문학과와의 연장선상에서 어떠한 공동체를 탐색하려 했으며 그

45) 이에 대해서는 김억(1925.5), 『작시법(二)』, 『조선문단』, 조선문단사, pp. 100~105; 김억(1927.1.2~1.3), 『뱀아질朝鮮詩壇의길(上·下)』, 『안서김억전집5-문예비평론집』(박경수 편), 한국문화사, pp. 367~368; 김억(1928.10.18~21), 『朝鮮詩形에 關하여』를 讀고서, 『안서김억전집5-문예비평론집』(박경수 편), pp. 374~384 참고.

46) 이에 대해서는 최남선(1926.5), 『朝鮮國民文學으로의時調』, 『조선문단』, pp. 3~7; 최남선(1926.6), 『時調胎盤으로의朝鮮民性과民俗』, 『조선문단』, pp. 3~7 참고.

47) 대표적으로 구인모(2008), pp. 57~82 참고.

것이 그의 문학에서 차지하는 의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자.

一.

무틀峯 기여올라 千里天坪 내다보니  
넓기도 넓을시고 우리옛터 예아닌가  
인興이 잦기도전에 눈물벌서 흐르네

二.

우리님 歸天한후 멧멧滄桑 지넷관대  
넛神墟 어대가고 萬眼蒼鬱 樹林췌가  
생각이 네로달리니 아득아득하여라

「無頭峯上에서天坪一帶를俯瞰함(二首)」 전문<sup>48)</sup>

백두산 시편은 ‘갑령’(甲嶺), ‘두만강’(豆滿江), ‘신무성’(神武城)을 지나 백두산의 ‘무두봉’(無頭峯), ‘정계비’(定界碑), ‘대장봉’(大將峰), ‘천지’에 이르는 여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인용된 부분은 ‘무두봉’에서 민족사가 발원한 기원과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변영로는 ‘무두봉’에서 드넓게 펼쳐진 ‘천평’(天坪), 즉 민족의 ‘옛터’를 확인하고자 ‘흥’보다 먼저 ‘눈물’에 젖는다. 이는 아마도 민족사의 기원과 마주하는데서 오는 감격이라기보다 그것을 상실해버리고 그것과 자신 사이에 가로놓인 현격한 ‘거리감’을 마주한데서 오는 슬픔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변영로는 인용된 부분 이전에 멀리서 백두산을 보는 장면에서 ‘설움’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위에서 자신과 ‘옛터’ 사이에 가로놓인 시간적인 거리감을 “멧멧창상”(滄桑)이라는 시어와 “아득아득”이라는 부사로,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감을 예전의 “신허”(神墟)를 찾을 수 없이 자신의 주변 곳곳에 “수림”(樹林)만 울창하다는 표현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48) 변영로(1930.9.6), 『동아일보』, p. 4.

하지만 이때 변영로가 느끼는 슬픔을 그저 기원의 상실에서 오는 감정의 토로로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서 그가 ‘남’=‘조선’을 상실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송고한 위치에 두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옛터’를 물리적이고 시간적인 ‘거리감’에도 송고한 위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인용된 부분 이후에 백두산 ‘천지’가에 팔베개를 하고 누우면서 자신이 ‘안 지은 죄’를 지은 것 마냥 가슴이 뛰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말하자면, 변영로는 백두산에서 마주한 기원을 상실한 데서 오는 슬픔을 죄책감으로 전이시킴에 따라 기원에 대한 지향성을 표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지금까지 논한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는 아득한 ‘옛터’에서 그가 지속적으로 구상해오던 공동체의 원형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변영로는 백두산 시편을 발표하고 나서 일제 말기에 드문드문 내향적인 성향의 시들을 발표하기 전까지 별다른 시들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sup>49)</sup> 그가 ‘옛터’에서 어떠한 공동체를 발견하려 했는가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주변 인물과의 관계에 따라 간접적으로 그가 구상해오던 공동체의 상을 보충하고자 한다.

---

49) 일제말기 변영로의 문학과 활동에 대해서는 김영민(1985), pp. 93~153 참고. 아마도 현재의 추세로 미루어보아 앞으로 변영로의 작품들이 좀 더 발굴된다면 1930년부터 해방 전까지의 공백을 채워낼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가능성으로는 변영로가 주필로 있었던 『신민공론』이 발굴된다면 당대 조선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변영로의 시각뿐만 아니라 그가 구상하고자 한 공동체의 상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신민공론』은 현재 1923년 신년호(서강대 로올라도서관 소장)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며 거기서 변영로는 별다른 글을 게재하고 있지는 않다.



(가) …대개 朝鮮族이 最初에 西方 파미르高原 或 蒙古 等地에서 光明의 本源地를 찾아 東方으로 나와 不咸山(今 白頭山)을 明月이 出入하는 곳 곧 光明神의 棲宿으로 알아 그 附近의 土地를 朝鮮이라 稱하니 조선도 古語의 光明이란 뜻이니 조선은 後世에 吏讀字로 朝鮮이라 쓰니라. (…)

朝鮮族은 宇宙의 光明(第一章 參考)이 그 崇拜의 對象이 되어 太白山의 樹林을 光明神의 棲宿所로 믿어 그 뒤에 人口가 繁殖하여 各地에 分布하매 각기 居住地 附近에 樹林을 길러 太白山의 것을 模像하고 그 樹林을 이름하여 「수두」라 하니, 수두는 神壇이란 뜻이니 (…) 強敵이 侵入하면 各 수두 所屬의 部落들이 聯合하여 이를 防禦하고 가장 攻이 많은 部落의 수두를 第一位로 尊奉하여 「신수두」라 이름하니 「신」은 最高最上을 意味한 것이며, (…) 수두는 小壇이요, 신수두는 大壇이니 수두에 檀君이 있었은즉 수두의 檀君은 小檀君이요, 신수두의 檀君은 大檀君이니라.<sup>50)</sup>

(나) …“朝鮮”이라는 이름만 하여도 어떠한 一方, 一國을 特稱한 것이 아니요 그 語源이 “管屬된 土境”이라는 意義이니 治下에 國家를 衆建하여 가지고 이를 總括하여 부르는 恢濶한 名稱인즉 部落으로서와 小國으로서를 떠난 大一統의 結構 | 이름만에도 宛然함은 물론이어나와 漢土로 말하면 가로되 天下라 하고 가로되 宇內라 하면서도 그 結構를 號함에는 唐이라 夏라 하여 區別的 表示가 있었건마는 “朝鮮”은 한갓 “所屬”이라 함에 그치는 말이요 어떠한 區別稱인 것이 아니니, 彼는 오히려 外地에 對함이 있음을 보이었던 此는 一體同祖뻘으로 天地間에 우리 以外가 없이 東西南北이 한 식구로만 지나던 그때를 如實하게 나타낸 것이니 다른 것은 다 그만 두고라도 “朝鮮” 兩字 | 古朝鮮을 映露하고도 남음이 있다.<sup>51)</sup>

50) 신재호(1972), 『조선상고사』, 『단재신재호전집 상권-조선사연구』(단재신재호전집편집위원회 편), 을유문화사, pp. 64-67.

51) 정인보(1983), 『조선사연구(상)-담원 정인보전집3』, 연세대학교 출판부, p. 48.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단재 신채호에 대한 변영로의 회고에 근거하여<sup>52)</sup> 신채호의 투철한 민족의식이 변영로를 ‘민족시인’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왔을 뿐<sup>53)</sup> 실제로 신채호와 변영로가 어떠한 영향관계에 놓여 있었는가에 대해 제대로 주목받지는 못했다. 마찬가지로 위당 정인보가 변영로의 첫 시집 『조선의 마음』 발문을 썼다는 사실에<sup>54)</sup> 대해서도 별다른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인보와 변영로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도 해명되지 못했다. 물론 우리는 문학과 역사의 층위를 고려하여 변영로가 구상하려는 공동체를 역사적 사실로 치환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지만 적어도 역사적으로 성립된 공동체에서 공동체 구성 원리를 확인하는 작업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상고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단재 신채호의 저작인 『조선상고사』는 해방 후 1948년에 간행되었지만 그 전에 1931년 『조선일보』 학예란에 연재되었다. 이 책에서 신채호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집약할 수 있는 역사관에 따라 올바른 ‘아(我)를 찾고 나아가 조선 민족의 기원을 탐색하려했다. (다)에서 그는 조선 민족의 기원을 ‘광명의 본원지’인 불함산(백두산)에 두면서 ‘국가’ 시대 이전에 존재하였던 ‘수두’ 시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조선 민족은 신성한 수림 속 신단(神壇)을 가리키는 ‘수두’를 기반으로 하여 각 지역의 자치조직을 형성하고 있었다.<sup>55)</sup> 일종의 중앙수두라 볼 수 있는 신수두가

52) 변영로는 신채호에 대한 회고를 담은 「國粹主義의 恒星 申采浩先生」이라는 글을 『개벽』 제62호(1925.8)에 발표한 바 있다.

53) 김영민(1985), pp. 18-55.

54) 정인보는 「수주시집첫장에」(『조선의 마음』, pp. 1-4)라는 서문에서 자신이 변영로를 가장 가까이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 자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수주의 걸음이 ‘월궁’에 들만큼 뛰어나면서도 시운과 사위의 불운으로 중간에서 ‘방향’하고 있는 것이라 말함에 따라 변영로의 시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55) 신범순(2011), pp. 259-260.

각 지역의 수두를 관장하면서도 각 지역의 수두 또한 자율적인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sup>56)</sup> 말하자면, 신채호는 국가 시대가 전개되기 이전에 자율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여러 소국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연합체에서 조선 민족의 기원을 찾고 있는 것이다.

신채호의 이러한 관점은 이후 정인보가 1935년 1월 1일부터 1936년 8월 29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한 것을 발간한 『조선사연구』(1946년 9월 상권, 1947년 7월 하권)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정인보 또한 이 책에서 조선의 시조를 ‘단군’으로, 민족의 기원을 ‘백두산’으로 보고서 고조선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조선의 원시적 형태를 공동체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에 따르면, ‘조선’이라는 이름은 “관속(管屬)된 토경(土境)”을 가리키는 것이지 어떠한 “일방”(一方)이나 “일국”(一國)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심지어 ‘조선’을 “천하”(天下)나 “우내”(宇內)라는 개념으로 지시하고 있기도 하다. 말하자면, ‘조선’은 종족이나 영토의 구분 없이 서로 조화롭게 “소속”(所屬)되어 있는 “식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처럼 신채호와 정인보가 말하는 민족의 기원으로서의 ‘조선’은 근대 국민국가의 개념이라기보다 그러한 체계가 형성되기 전에 각자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토대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시조의 형식을 통해 민족의 ‘엠티’인 백두산을 기행하고 기원에 대한 지향성을 보여준 변영로에게로 돌아가 보자. 물론 우리가 이미 경계했다시피 그가 탐색하려한 공동체를 영향관계에 따라 신채호와 정인보가 말한 ‘조선’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동체의 관

56) 참고로 신범순은 근대적 국민국가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나라’를 제시한다. 그는 ‘국가’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권력집단의 제도와 사회적 틀로 작동하는 정치경제학적 범주인 반면에 ‘나라’는 그것을 넘어서 있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나라’는 권력에 의한 영토의 법적 귀속 한계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법으로 파악되지도, 또 그것에 구속되지도 않는 영토의 자연물, 생명체, 그러한 것들이 복합된 생태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신범순(2011), pp. 263~268).

점에서 보건대 적어도 먼 지점에 있지는 않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변영로는 초기 시에서부터 방랑과 꿈의 모티프를 통해 ‘님’=‘조선’을 숭고한 위치에 두고 이를 ‘생명’의 근원으로 지시하고자 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그는 기행의 방식과 시조의 형식을 통해 ‘생명’의 근원을 본격적으로 탐색하는 것과 함께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던 공동체의 원형을 백두산의 ‘엿터’에서 발견하고자 했다. 말하자면, 국가시대 이전에 존재하였던 공동체는 변영로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모색해오던 공동체의 원형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공동체는 당대에 이미 상실해버렸음에도 변영로는 ‘생명’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것을 탐색하고자 했으며 아울러 ‘개성’의 원리를 토대로 개체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당대 조선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 보편성이라는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구상하고자 했던 것이다.<sup>57)</sup>

## 5. 나오며: 1920년대 문단에서 변영로 초기 문학의 의의

지금까지 이 글은 수주 변영로의 초기 문학에 나타나는 방랑의 모티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그에 따라 탐색하고자 하는 이상적 공동체의 상(像)과 의의를 해명하고자 했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변영로의 문학에서 1920년대 초기 시들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낭만적 감상주의와 소극적 도피주의와 변별되는 언어적 감수성을 확인해오거나 그의 대표작인 『논개』를 중심으로 투철한 민족정신을 확인해왔다. 이에 따라 변영로는 일찌감치 ‘민족주의’를 고취하고자 한 시인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결과적

57) 필자는 비슷한 관점 아래 1920년대 초기의 조선에서 ‘단군’으로 표상되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탐색과 함께 전통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즘 등 다양한 사상을 지닌 구성원들이 각자의 독자성을 발휘하는 가운데 공동체 구성의 원리와 실현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측면을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호영(2016), pp. 144-208 참고.

으로 그의 문학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는 제한되어왔다. 이 글은 바로 변영로의 문학세계를 ‘민족주의’라는 이념성에 직결시킴으로써 결락되는 미세한 의미망을 공동체의 관점에서 고찰해봄으로써 그의 문학에 새롭게 접근할 가능성을 열어놓고자 했다.

변영로의 초기 시들을 검토해보면 일관적으로 ‘남’이라는 대상에 대한 상실감을 ‘거리감’으로 구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지향성을 ‘방랑’과 ‘꿈’의 모티프를 통해 반복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남’=‘조선’이 그에게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그는 ‘조선’을 ‘정신’이라는 기호에 위치시키고자 했으며 이를 탐색하기 위해 상징주의나 신비주의를 수용하려 하였다. 그리고 그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탐색과 함께 ‘개성’을 도입하여 개인의 주체성과 조선적 특이성이 세계적 보편성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공동체를 구상하고자 했다. 192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변영로가 공동체를 탐색하려는 시도는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변영로는 초기부터 일관해오던 방랑을 기행의 방식으로 구체화하였으며 당대 문단에서 대표적인 전통적 양식으로 거론되던 시조를 차용하여 이상적 공동체를 모색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특히, 그가 민족사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백두산을 기행하고 이를 시조의 형식에 담아내려 한 것은 단순히 민족정신에 복무하려는 시도로만 볼 수 없다. 그보다 지금까지 그가 구상하려는 공동체의 원형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그와 정신적으로 큰 영향관계에 놓여있던 단재 신채호와 위당 정인보의 역사관을 참조하여 확인해볼 수 있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민족사의 기원으로 두고 있었던 ‘조선’은 국가시대 이전에 개체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전체의 이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로 나타나 있었다. 그런 점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이라는 일반론의 관점에서 ‘민족주의’가 개인의 개성을 집단의 이상에 희생시키거나 당대 조선사회에 국한된 배타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측면이 강한데 반해, 변영로가 구상하려 한 공동체는

‘생명’의 근원을 토대로 ‘개성’의 원리를 통해 개체와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변영로의 문학세계를 근대적으로 구성된 민족주의의 이념으로 환원시키기보다 당대 조선적 현실을 기반으로 이상적 공동체를 구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명하려 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 글에서 변영로의 초기 문학을 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시도는 1920년대 초기 문학을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종래의 논의와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자 료】

『개벽』, 『동아일보』, 『장미촌』, 『조선일보』, 『조선지광』, 『폐허』, 『폐허이후』, 『학지광』.

변영로(2010), 『수주 변영로 시전집』(민충환 편,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_\_\_\_\_(1924), 『조선의 마음』, 평문사.

### 【논 저】

#### ㉠ 한국어문헌

구상(1985), 「탐미와 민족애와 실존감성—수주 변영로의 시세계 별건」, 『곧고 다감한 구원의 자유인—수주 변영로의 인생과 문학』, 수주 변영로기념사업회 발기준비위원회.

구인모(2008), 『한국 근대시의 이상과 허상—1920년대 ‘국민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김영민 편(1985), 『수주 변영로 평전—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정음사.

\_\_\_\_\_ (1983), 『차라리 달 없는 밤이드면』, 정음사.

김영석(1984), 「수주 변영로의 시세계—관념과 현실」, 『어문연구』 12권 2~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민충환(2009), 「변영로의 새로운 작품에 대해서(2)—『동아일보』 발표본을 중심으로」, 『소설과 비평』 창간호.

\_\_\_\_\_ (2008), 「변영로의 새로운 작품에 대해서—『조선일보』 발표본을 중심으로」, 『부천작가』 8, 산과들.

김억(1987), 『안서김억전집5—문예비평론집』(박경수 편), 한국문화사.

박현수·홍현영(2015), 「1920년대 초기 『조선일보』 「문예란」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제57호, 민족문학사학회.

신범순(2011), 『노래의 상상계—‘수사’와 존재생태기호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신채호(1972), 『단재신채호전집 상권-조선사연구』,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편, 을유문화사.
- 오세인(2014), 「변영로 시에 나타난 ‘거리(街)’와 ‘길’의 표상 대비 연구」, 『한국시학연구』 제39호, 한국시학회.
- \_\_\_\_\_(2013), 「변영로 시 연구-‘관념’과 ‘감각’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Vol. 23,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 윤의섭(2013), 「근대시에서 ‘승고’의 위상」,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 윤지영(2012), 「한국 현대시의 승고 연구에 관한 탈근대적 검토」,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8집, 현대문학이론학회.
- 이선희(1985), 「수주 변영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호(2005), 「일제시대 아나키즘 문학 형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마누엘 칸트(2014), 백중현 옮김, 『판단력 비판』, 아카넷.
- 정인보(1983), 『조선사연구(상)-담원 정인보전집3』, 연세대학교 출판부.
- 정주아(2014), 『서북문학과 로컬리티-이상주의와 공동체의 언어』, 소명출판.
- 최호영(2016), 「1920년대 초기 한국시에서의 승고시학과 생명공동체의 이념」,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_\_\_\_\_(2014), 「『기독신보』에 나타난 문인들의 활동과 ‘이상향’의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제56호, 민족문학사학회.
- \_\_\_\_\_(2014), 「아나기 무네요시의 생명사상과 1920년대 초기 한국시의 공동체 문제」, 『일본비평』 제11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허수진(1998), 「1920년대 시의 ‘님’ 지향성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㉞ 기타 동양문헌

鈴木貞美(1996), 『生命で読む日本近代-大正生命主義の誕生と展開』, NHK BOOKS.

원고 접수일: 2016년 7월 1일

심사 완료일: 2016년 7월 29일

게재 확정일: 2016년 8월 11일



ABSTRACT

---

Ideal Community Theory and Wandering  
Represented in Suju Byeon, Young-ro's Early Literature

Choi, Ho-yo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pecifically examine the mode of wandering consistently represented in Suju Byeon, Young-ro's early poems and to elucidate the significance and form of ideal community. Byeon, Young-ro's early poems revealed the intentionality of the subject called 'Nim' by expressing repeatability of 'dream' and 'wandering', thereby showing that it was the origin of 'life' to him. Based on this, he came up with the idea of community where Joseons particularity and individual independence could be expanded into a global universalit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individuality'. In the mid-1920s Byeon, Young-ro specified wandering into the method of travel and explored ideal community by borrowing sijo(traditional three-verse Korean poem) discussed as a classical form in the contemporary literary world. This point can be verified with the historical book written by Danjae Shin, Chae-ho and Widang Jeong, In-bo. Therefore, this paper considers the mode of wandering in his early poems as the device to investigate community, which can be an alternative of the reality of Joseon period, and to explore the origin of 'life' rather than as returning to the ideology of nationalism.

---

\* Post-Doc.,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